

자매도시체결 40 주년 ‘뮌헨·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’

프릴리히 바인아크텐!(독일어로 메리 크리스마스!)

저는 삿포로시 독일 국제교류원 크리스티앙 휘책입니다.

삿포로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‘뮌헨·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’!

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처음 개최된 해는 뮌헨시와 자매도시체결 30 주년을 기념한 2002 년입니다. (당시 입장객 수 36 만 명) 10 회째를 맞이했던 작년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약 80 만 4 천 명의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일대 이벤트로 성장해 왔습니다.

2012 년은 뮌헨과 자매도시 체결을 맺은 지 4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보다 매력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하기 위해 ‘제 11 회 뮌헨·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’에서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벤트가 기획되고, 크리스마스 마켓의 특설회장을 2 곳으로 늘렸습니다.

새로운 특설회장의 첫 번째 장소는 삿포로의 유명 쇼핑몰인 ‘삿포로 팩토리’입니다. 12 월 1, 2 일 이틀 한정으로 개최되는 ‘뮌헨·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 Day’에서는 가스펠과 코러스와 같은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라이브 공연과 독일문화체험 워크숍이 실시되는 것 외에 뮌헨·크리스마스 마켓의 산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
두 번째 장소는 2 초메 메인 회장 바로 옆에 있는 1 초메 삿포로 TV 탑 회장입니다. 삿포로의 관광명소로써 인기있는 ‘삿포로 TV 탑’에서는 2 초메 회장과 함께 11 월 26 일(월)부터 12 월 24 일(일요일, 공휴일)까지 여러 음식점을 운영합니다. TV 탑 아래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빠져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?



물론 메인회장은 오도리 공원 2 초메입니다. 17 점포의 기념품 판매점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해외로부터 5 점포가 출점합니다. 홋카이도 가게도 많이 마련되어 홋카이도다운 분위기와 국제적인 분위기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. 10 점포의 음식점 중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가게에서는 독일 정통 요리를 판매하여, 요리면에서도 맛있는 해외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

제 10 회(2011 년) 오도리공원 2 초메 회장 모습

또한 사진처럼 각 부스는 독일의 전통가옥, ‘파하베르크하우스’(Fachwerkhaus) 스타일로 예쁘게 꾸며져 있어 삿포로가 아닌 마치 독일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. 따뜻한 글뤼바인 와인을 마시면서 뮌헨 · 크리스마스 마켓 회장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‘삿포로에 오길 잘했다!’고 생각합니다.

그리고 크리스마스하면 ‘산타클로스!’ 크리스마스 마켓 회장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발길을 향하면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.

뮌헨 · 크리스마스 in Sapporo 마켓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벤트와 각 부스 정보와 함께 산타클로스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으므로 꼭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

뮌헨 · 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 공식 홈페이지

<http://www.sapporo-christmas.com/>